

# “빛고을 르네상스 시작...거리 전체가 전시관으로”

예술의거리서 5일-11월15일 ‘2026 ART STREET FAIR 거리를 전시하다’

‘빛고을 르네상스 연대’ 출범

오래된 건물·골목·걷는 시간까지 전시장화

갤러리·미술관·초등학교 등 5곳 참여

“자체 문화 브랜드로 성장 목표”

광주 예술의거리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예술의거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은 ‘빛고을 르네상스 연대’를 출범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이 거리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페스티벌을 시도한다.

광주 예술의거리는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첫 전시 페스티벌 ‘2026 ART STREET FAIR (아트스트릿페어) 거리’를 전시하다(EXHIBITING THE STREET)’을 오는 5일부터 11월15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5시다.

이번 아트스트릿페어는 예술의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공간을 연결하고, 각각의 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 거리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바라보도록 기획됐다.

지난해 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연대와 논의, ‘빛고을 르네상스 연대’의 출범을 거치며 구체화됐고, 다섯 개 공간이 함께하는 아트스트릿페어로 이어졌다.

올해 첫 시작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시기에 맞춰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광주의 다양한 시각예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참여하는 다섯 공간은 GD30갤러리, 갤러리화, 광주화랑, 은암미술관, 광주중앙초등학교 등이다.

아트스트릿페어는 각각의 장소와 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시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다.



관객은 한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걸으며 작품을 만나고, 그 사이 골목과 오래된 건물, 상점과 사람, 거리의 시간까지 함께 경험하게 된다.

즉, 걷는 사람이 관객이 되고, 골목이 전시장이 되고, 거리 전체가 하나의 전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올해 개최 주제는 ‘거리를 전시하다(EXHIBITING THE STREET)’로 정했다.

GD30갤러리는 예술의거리에서 활동하는 전업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로, 박제인, 최

재영 개인전과 김병택·김서아·박제인·최재영의 다체전 등이 열린다.

갤러리 화는 ‘화담·예술적 사유에 대하여’를 타이틀로 한화원, 박하선, 오건규, 박주하, 김해성 등 다섯 작가의 전시를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광주화랑은 ‘시간은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를 주제로 정순이, 서은선, 윤부열·곽예상·조성민·최가을, 김혜선의 전시를 차례로 이어간다.

은암미술관은 이번 아트스트릿페어를 통해 갤러리 중심의 전시 동선을 미술관 영역으로 확장한다. 갤러리와 미술관, 학교가 하나의 거리 프로젝트 안에서 연결됨으로써 예술의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보여준다.

광주중앙초등학교는 ‘수학X문화예술 융합전 & 국제 어린이 미술전’을 통해 학교의 공간을 아트스트릿페어의 전시 동선으로 확장한다.

아트스트릿페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다시 예술의거리를 찾게 하고, 예술 관람과 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에 향후에는 예술의거리 안팎의 갤러리와 미술관, 작업실과 상점, 유흥공간 등으로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궁윤 총괄기획자는 “오랫 동안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 예술의거리에서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전시축제를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다”면서 “예술의거리에는 이미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공간과 예술가들이 있다.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매년 새로운 작가와 전시, 공간이 더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예술의거리를 자체의 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AI, 무등산과 전통을 그린다

국악양상블 토리, 6일 첫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고유한 맛에 AI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선율이 더해졌다.

‘무등산’을 주제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특별한 무대가 오는 6일 전통문화관 석석당에서 펼쳐진다.

국악양상블 토리는 첫 번째 정기연주회 ‘AI, 무등산과 전통을 그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리가 주최·주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의 상징인 무등산의 자연과 역사, 우리 전통음악을 AI와 국악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무대로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무등산의 자연과 역사적 의미를 가사에 담아 소리로 풀어낸 곡 ‘무등산의 숨결’, 전통적인 사물놀이의 에너지와 AI가 만들어낸 다양한 리듬을 결합한 ‘사물놀이와 AI 리듬’, 전통 악기들이 AI가 창작한 선율을 연주하고 그 위에 국악 노랫소리를 더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등을 선보인다.

/오복기자



실크로드 따라 떠나는 이색 전시

ACC, 시니어 연극형 투어 운영

지역 어르신들이 연극과 음악을 결합한 전시 투어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여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시니어 대상 연극형 전시 관람 투어 ‘실크로드 인생 유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ACC 시니어 투어-실크로드 인생 유람’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기획한 연극형 전시 관람 프로그램이다.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 ‘길 위의 노마드’와 ‘문순으로 열린 세계’를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와 교류의 역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복기자

## 기억을 수집하는 도깨비...연극 ‘럭키! 전당포’ 광주 무대

심야N연극제 전국투어 3-6일 기분좋은극장

프로덕션유월의 창작 페퍼토리 ‘럭키! 전당포’가 제3회 심야N연극제 선정돼 이달 광주를 찾는다.

‘럭키! 전당포’는 심야N연극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나인진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제3회 심야N연극제에 선정돼 제작됐으며, 지난날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 전국투어 형태로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오는 3-6일 기분좋은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물건에 남겨진 기억을 매개로 지나는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인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전당포를 위장 운영 중인 오래된 도깨비들의 이야기다. 어느날 증조할머니의



물건을 찾으러 온 명을 도와주기 위해 전당포에서 일하는 도깨비들이 자신의 기억을 되짚으

며, 관객들이 그 여정을 따라가는 구성이다.

창작진은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의 기분좋은극장, 대전의 아산극장과 나인진엔터테인먼트가 협력해 전국 단위 연극제의 일환으로 준비돼 의미를 더한다. 티켓 예매는 예스24티켓, NOL티켓, 티켓링크, 네이버예약, 타임티켓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복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